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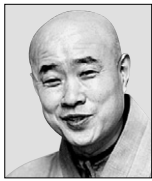
일주문



제2회 금강경 강송대회 서울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은 9월 15일까지 제2회 전국 금강경 강송대회 참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풍년기원 아단법석 콘서트 천대종 총무원장 대행 무원 스님은 8월 31일 충북 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풍년기원 한마당' 아단법석 콘서트를 개최한다.



경전교실 이전법회 이전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은 8월 16일 잠충동 우리함께빌딩으로 경전교실 이전법회를 봉행했다.



곰두리축구단 템플스테이 체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해일 스님은 8월 16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뇌성마비 장애인 축구팀 '곰두리축구단' 팀원들과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마음 천천히 쓰는 법> 사인회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8월 25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 출간 사인회를 연다.



제3회 불교심리 심포지엄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심리연구원 원장은 9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회 불교와심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창립 37주년 기념법회 김규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8월 14일 마포 다보빌딩 대법당에서 창립 3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정규제정위원장 설우 스님 선출 제정위 2차 회의서... 정규 제정 방향 논의



위원장 선출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조계종 정규제정위원회가 위원장을 선출했다. 정규제정위원회는 8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정규위원장에 호선했다. 설우 스님은 사의를 표명한 월암 스님을 대신해 정규위원으로 이날 회의에서 위촉됐다.

이날 정규제정위원회는 현대적 정규에 대한 제정 방향과 회의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매월 2, 4주 오후 2시에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는 위원장 설우 스님을 비롯해 덕문(동도사 율원장), 성문(동화사 주지), 주경(중앙총회위원장), 강설, 법인(교육부장), 원명, 계호 스님(비구니회운영위 수석부위원장) 등 총 11명 중 8명이 참석했다. 신종일 기자

“불교학 저변확대에 힘 쏟을 것”

선학원 제18대 이사장 법진 스님 재선



8월 9일 임시이사회서 만장일치로 불교학 진흥 위한 지원 중점

“설립자인 만해 스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포교와 불교학 발달에 진력하겠습니다.”

선학원 제18대 이사장에 현이사장 법진 스님(사진)이 재선출됐다. 재선법인 선학원은 8월 9일 서울 안국동 중앙선원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총 13명 이사 중 12명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이사장으로 현 이사장인 법진 스님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 제18대 이사장 임기는 9월 18일부터 4년간이다.

법진 스님은 재선 인사말에서 “재단에 쉽지 않은 과제들이 많이 놓여 있다. 저로 하여금 심부름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재단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진 스님은 1970년 범어사에서 석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구족계를 수계했다. 범어사 불교전문강원 사교과를 수료한 스님은 동국대 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원광대에서 ‘조선종교사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조계종 사회국장, 성북경찰서 경승실장, 월곡청소년센터 관장, 선학원 중앙선원장을 지냈다. 현재 불교저널·월간선원 발행인, 한국불교선리

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법진 스님은 특히 학술진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산하 선리연구원 원장을 맡으며 매년 선리학술상을 통해 수십명의 소장학자들의 학문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1논문 1사찰 지원사업을 펼쳐 선학원 전반에 학술지원 풍토가 자리잡도록 노력

하고 있다. 법진 스님은 “학문발전과 포교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불교학 진흥이라는 불교 발전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학술지 등재를 비롯해 불교학 저변확대에 보다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학원은 만해 스님과 용성 스님 등 불교계 민족열사들이 설립한 곳이기도 하다. 스님은 선학원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스님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진 스님은 “광복절과 독도문제 등 현 시국에서 불교계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만해 스님의 열반이나 당시 만들었던 선원지 등에 대한 조경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승가의 본 목적은 위로는 부처님 법을 잇고 아래로는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승가의 모습을 재정립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선학원 이사회는 같은 날자로 임기 만료되는 승운 스님 등 9명의 이사에 대해 중임을 결의했다. 또 기본재산 취득의 건 등 10개 건에 대한 의결·심리 및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상반기 학술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미주종교협 종교평화상 수상

법타 스님, 지난달 27일... 남북교류 활동 공로로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사진)이 지난 7월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주 종교평화회의주관 ‘제3회 종교평화상’ 시상식에서 평화상을 수상했다.

미주 종교평화회의(상임대표 양운성, 원불교 교무)는 “법타 스님은 지난 20여년 간 불교계 성직자로서 남북 교류활동에 선구자적 역할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3회 종교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법타 스님은 “미주종교평화회의가 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 등 각 종교들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지내듯, 우리 재미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도 국내 동포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화합의 힘으로 남과 북이 평화통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강조했다.

법타 스님은 1998년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금강산문화유적복구협약을 맺고 금강산 신개사 복원사업을 주도했으며, 2002년부터 평양법운향 단청 및 삼존불 개금, 사리원 성불사 단청 및 삼존불 개금 등 북한의 사찰과 불교문화재 보존사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 바 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미주종교평화회의’는 1997년 5월 ‘북미주종교협회의’라는 이름으로 창립됐으며, 그동안 김광준 신부, 김성근 전 국회의원에게 상을 수여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통일 대비 남북청소년 교류 모색

파라미타 신임 사무총장 법경 스님

“지도자 확보와 조직 활성화로 국내·외로 뻗어나가는 파라미타 만들고 싶습니다.”

법경 스님(홍은철 주지·사진)이 8월 16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총재 지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법경 스님은 지난해 포교원 어린이 청소년위원회령 제정으로 사무총장 당연직 규정이 폐지된 후 임명된 첫 사무총장이다.

법경 스님은 “충청남도나 경북·제주도 같은 지역은 파라미타 연합회가 전무하다. 지역적으로 낙후된 곳까지 조직을 확대·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경 스님은 “교수불자회, 교육경영직불자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협조를 얻어 지도자 양성에 뜻있는 분들을 파악해 낙후된 청소년 단체를 지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후 도내 학교와 사찰간 연계를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경 스님은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통일에 대비한 남북 청소년 교류와 북한청소년들의 물질적 지원 등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법경 스님은 1968년 월정사에서 태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5년 백양사에서 서울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계했다. 백양사승가대학교와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스님은 포교원 포교국장, 파라미타 사무총장, 중앙총회위원, 민주본 사무처장, 총무원장 총책특보 등 중단 주요 소임을 지냈다. 2007년부터는 파라미타 이사로 활동해 왔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행복한 나눔 가게 ‘여여’ 문열어

봉은사가 행복한 나눔가게 ‘여여’를 개장한다. 사회복지법인 봉은(대표 진화)은 8월 24일 행복한 나눔 매장 ‘여여’를 개장식을 개최한다.

봉은사 내에 자리할 나눔 매장 ‘여여’는 봉은사가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봉은에서 운영하며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면 수익금을 지역의 농민들과 소외된 이웃에게 혜택이 돌아 가게 된다. 특히 지역 농산물 생산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친환경 지역 특산물 직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다.

봉은사는 여여 개장을 맞아 8월 25~26일 양일간 봉은사 진여문에서 지역 특산물 특판행사를 진행한다. (02)3418-4842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법사대 법사하계수련회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학장 지원)은 8월 3~5일(제21회 법사과정), 8월 11~12일(제11회 대법사과정)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재학생 110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사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날 하계수련회에서는 불교교양 수업과 법사양성 과정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호국불교조계종 총본산 봉불 점안



(사)호국불교조계종(총무원장 성도)은 8월 12일 종단 총본산인 양산시 상북면 청운사 대법당에서 봉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안법회에는 종정 운송 스님, 총무원장 성도 스님, 총회위원장 일봉 스님, 포교위원장 운암 스님, 중앙비구니회장 범우 스님 등 종단임원 및 종도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일봉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점안식에서 총무원장 성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수행이나 깨달음 못지않게 중생구제의 중요성을 실천하는 대승불교의 정신이 우리 호국불교조계종의 이념”이라며 “정법주의, 자비주의, 평등주의의 실현을 통한 불국토 건설에 두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종정 운송 스님은 법어를 통해 “호국불교의 기치로 호국선사님들의 뜻을 받들어 국가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중추 중반으로 전 중도가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051)468-5657 노덕현 기자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특차모집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1부 • 최종성적증명-1부 • 입학신청서-1부 • 여권용사진-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남경대학	4년	40명	
남경부속 중·고등학교	각 3년	4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2. 학교소개

-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한의과대학
-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 군입대 연기가능
-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수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학자금 대출가능
-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 직업의사(국제중의사) 자격 취득자는 한국에서 의사로서 의료활동 가능

3. 지원자격

-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 ▶ 주지스님 추천자
- ▶ 합격자 전원 중국대학에서 수업 남경중의학대학 전원기숙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 전형제외 : 색명, 색약, 유전(전염병)

※모집기간 : 2012년도 8월 28일까지

5. 문의처

- ☎ 전화 : 011-472-2782(직통)
- ☎ 팩스 : 02)511-2028
-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 : //www.njutcm.co.kr
-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남경중의학대학 (南京中醫藥大學)